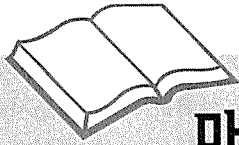


◎ 도서관이 알아야 할 출판과 책 이야기 ◎



마이너리티의 세계를 그린 일본의 성장소설



한미화*

정확히 그게 언제부터 인가 기억은 안 나지만 읽었다하면 일본 소설이다. 의식적으로 찾아 읽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다. 일본소설에 관한 특별한 호불호가 있는 것은 없으니까. 있다면 한 사람뿐이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은 찾아서 읽었다. 어느 한 시기 집중적으로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들을 읽어치웠더니, 그로부터 시간이 꽤 흐른 지금은 줄거리가 헛갈리는 후유증을 앓고 있다. 그러나 하루키와 하루키적인 것에 대한 선호는 혼자만의 병은 아니다. 내가 알기로 주위에서 책을 좋아한다고 하는 사람치고 혹은 책 좀 읽었다는 성인남녀치고 일찍이 하루키에게 은혜 입지 않은 사람이 드물 정도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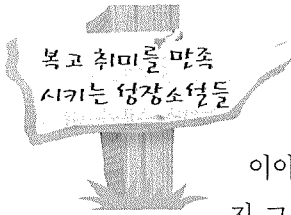
문제는 하루키 이후 거의 읽지 않았던 일본 소설들을 갑자기 왜 이렇게 읽어 대고 있나 하

는 점이다. 최근 읽은 소설을 나열해보면 만만치 않다. 요시모토 바나나의 『티티새』, 에쿠니 가오리의 『낙하하는 저녁』, 야마다 에이미의 『나는 공부를 못해』, 가와카미 히로미의 『선생님의 가방』, 시게마츠 키요시의 『비타민 F』, 카네시로 카즈키의 『레벌루션 No.3』, 이시다 이라의 『4teen』, 쓰지 히토나리의 『사랑을 주세요』 등에도 읽고 있는 와타야 리사의 『발로 차 주고 싶은 등짝』, 오가와 요코의 『박사가 사랑한 수식』, 카네시로 카즈키의 『Go』까지 줄줄이 사탕이다.

상대적으로 일본소설을 많이 읽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또 때로는 너무 가벼운 일본소설을 만나게 되면 이것만 읽고 일본 소설은 끊어야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끊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우리 소설과는 다른 재미 때문이다. 일본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지닌 쿨한 윤리의식에도 곧잘 감정이입이 된다. 만약 이름을 가린 채, 이 소설을 어느 나라의 누

* 출판칼럼니스트, bangku@dreamwiz.com

가 썼는지를 모른 채 읽었다면 우리 작가가 썼다고 해도 믿을 만큼 보편적 정서와 맥이 닿아 있다. 그리고 우리 소설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경쾌함까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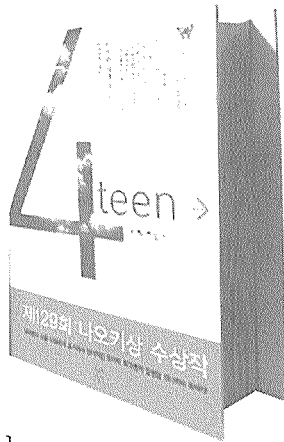
이시다 이라의 『4teen』을 후배에게 소개했다니, 날 밝으면 해도 될 이야기를, 막 책을 다 읽었는데 그 흥분이 느껴지게 오밤중

에 문자를 보내왔다. “넘 따뜻하고 재미있어요”하고 말이다. 이시다 이라의 『4teen』을 읽고 재미를 붙인 김에 카네시로 카즈키의 『레벌루션 No.3』를 읽어봤다 이것 역시 재미나다. 섬바디somebody를 꿈꿀 수 없는 이름 없는 노바디nobaody, 그들 마이너리티가 벌이는 한바탕의 활극이라고나 할까.

두 권의 책은 무언가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독일의 교양소설에서 비롯된, 자신의 정체성을 획득해나가는 내면의 성장을 그린 성장소설이기도 하다. 성장소설이야, 우리에게도 없지 않다. 그러나 두 권을 좀 다른 성장소설로 바라보는 것은 성장을 꿈꾸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그대로 담은 청춘소설이라는 점을 높이

하고 싶어서다.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 보면 요사이 인기 있는 성장소설을 쉽게 살펴 볼 수 있다. 사립고등학교에서 퇴학당한 주인공의 2박3일간을 담아낸 셸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 같은 외국작품들부터, 『봉순이 언니』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지상에 순가락 하나』 『고기잡이는 갈대를 꺾지 않는다』 『외딴방』 『19세』 같은 작품들까지 여럿이다.



내친김에 우리 성장소설을 하나 하나 되돌아보니 몇 가지 공통점이 짙어진다. 대부분의 소설들이 작가의 어린시절을 배경으로 한다. 『봉순이 언니』는 공지영이 서울 아현동에 살았던 어린시절을,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는 박완서가 1930년대 개경에서 보낸 어린시절부터 1950년대 서울에서 겪은 전쟁까지를 이야기의 배경으로 삼는다. 신경숙의 『외딴방』 역시 작

가가 열여섯에서 스무 살까지 공단과 산업체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문학을 꿈꾸던 시절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이 현재로부터 적게는 20년에서 많게는 70년 까지를 거슬러 올라간다. 이런 소설들은 작가가 겪은 어린시절을 배경으로 한 만큼 당시가 실감나게 복원된다. 예를 들어 박현욱의 성장소설 『새는』을 단숨에 읽었던 것은 내가 겪어온

◎ 도서관이 알아야 할 출판과 책 이야기 ◎

1980년대가 작품의 무대로 등장하기 때문이었다. 1980년대의 대중문화를 장식했던 수많은 아이콘이 소설 속에 촘촘하게 박혀있다. 아주 오래 동안 잊고 살았지만 분명 내 삶의 한 부분을 차지했던 것들과 조우하는 것은 뜻하지 않은 즐거움이다. 강수연, 조용원, 안문숙, 손창민이 등장하던 TV드라마 『고교생 일기』, 『라붐』이라는 영화를 히트시킨 소피 마르소와 학교 앞 문방구에 줄줄이 걸려있던 그녀의 코팅사진, 프로야구 원년을 빛낸 롯데 자이언츠, 오비 베어스, MBC 청룡, 삼성 라이온즈와 야구선수들, 조다쉬 청바지와 나이키 신발을 어찌 잊으랴. 그것들과 함께 20여 년 전으로 시간여행을 하는 일은 우리 성장소설이 곧잘 선사하는 선물이다. 다시 말해 우리 성장소설은 이미 성장이 종료된 성인들에게 자신이 성장을 반추하게 하는 매개물이다.

또 하나 성장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의 문제다. 대개 주인공은 작가의 분신인데, 그 아이가 또래의 아이라기보다는 좀 조숙한 소년이고 소녀다. 그래서 성인의 세계를 엿볼 줄 아는 위악함을 가지고 있다. 같은 또래가 지닐 법한 고민과는 좀 무관한 애어른들이다.



그러다가 최근 최연소로 아쿠다 카와상을 받은 와타야 리사의 『발로 차주고 싶은 등짝』

이나 나오키 문학상을 받은 이시다 이라의 『4teen』이나 카네시로 카즈키의 『레벌루션 No.3』같은 책들을 보면서 화들짝 놀랐다. 최근 일본소설들이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10대를 다루고 있구나 하는 자각에서였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누구나 어른이 되는 순간 그리고 기성세대로 편입되는 순간 청소년들을 이해하고 싶지도, 알고 싶지도 않다. 내가 살아온 청소년기도 끄찍했는데, 이해할 수도 없는 지금의 청소년들을 찬찬히 살피고 싶은 생각이 드는가. 물론 청소년들이 말 상대를 해주지도 않지만. 그런 마당에 작가가 청소년 안에 들어가 앉는다는 것은 보통의 내공으로는 불가능하다. 이쯤에 이르자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 작가들이 자신의 어린시절을 배경으로 삼아 성장소설을 써대는 것은 이유가 있다. 그건 안 쓰기 때문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을 주인공으로 삼은 성장소설을 못쓰기 때문이다.

『4teen』은 중학교 2학년인 네 소년의 이야기를 담은 연작소설집이다. 화자로 등장하는 데츠로는 평범하지만, 거식증과 폭식증 사이를 오가는 루미나와 사귀기도 하고 깊은 관계를 시도하기도 한다. 두꺼운 안경을 쓰고 다니는, 공부 잘하는 준 역시 엉뚱하게도 유부녀와 만난 경험이 있다(어디까지 갔는지는 상상에 맡긴다). 초고층 아파트에 사는 부잣집 아들 나오토는 어이없게도 서른 살에 죽을지도 모르는 조로증(조루증이 아니다)에 걸려 머리가 하얗게 새어

버렸다. 나오토의 생일선물로 친구들이 마련한 것은(원조교제를 할 것 같은)여자다.

마지막으로 중학생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거구인 다이가 있다. 그 녀석은 키가 180cm에 몸무게만 100kg이 나간다. 늘 먹을 걸 찾아다니기는 단순무식한 유쾌남이다. 그러나 술만 취하면 가족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를 두었다. 소설집에 담긴 단편 『하늘 색 자전거』를 읽다보면 다이와 아버지의 애증관계가 눈물나게 그려진다.

『4teen』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2000년대를 살고 있다. 어른의 세계를 아는 조숙한 아이들이 아니라, 그냥 지금 신주쿠나 이케부쿠로에 가면 만날 수 있을 법한 평범한 아이들이다. 셀러리맨 같이 매사에 시큰 동해 별명이 리맨인 담임아래서, 학생이라는 신세에 년털 머리를 내고 있다. 포르노 사진집을 돌려보고, 여자애들 앞에서면 그것이 딱딱해질 정도로 건강하다. 먹는 것만 밝히는 똥보 다이도 “나도 살이 빠질 정도로 열렬한 연애를 하고 싶다”고 외칠 정도로 성에 대한 관심이 넘친다. 큰맘 먹고 신주쿠에 가서 스트립을 구경하기도 한다. 하늘을 날 수 있다며 4층에서 뛰어내리는 친구, 동성애자라고 밝히는 친구, 거식증에 시달리는 친구들과 자전거를 타며 세상을 날아다니는 중이다.

단지 학교를 끄찍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 성에 대해 솔직하게 말한다는 점만을 빼고 일본 성장소설이 무엇이 우리와 비교대상이 되

느냐고 물을 수 있다. 『누가 일본을 왜곡 하는가』라는 책에서 박유하 교수가 진단한 일본문학의 정체성을 빌어 이 질문에 대답해보자. 우리문학이 개인의 내면을 다루고 있을 때 일본문학은 공동체의 문제와 죽음을 건너편 삶을 모색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 보자. 그래서 오늘의 일본문학은 남이 뭐라 든 나만의 나르시즘에 빠져있는 자폐적 문학을 벗어나 타자를 만나는 관계의 문학으로 옷을 갈아입었다.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설국』은 다른 어떤 것보다 일본적인 아름다움을 문학으로 승화시킨 작품이지만, 1994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오에 겐자부로의 문학은 인간의 본능 속에 유전자처럼 심어져 있는 폭력을 되짚고 있다. 다시 말해 30여년 사이에 일본문학은 일본적인 것에서 인간의 보편적 세계로 주제의식을 갈아 입었다.

서양인이 오리엔탈리즘적인 시선에서 바라볼 법한 ‘인류학적 특징’을 지닌 문학에서 벗어나, 특수한 상황을 그리되 거기서 나의 이야기라고 느낄 법한 인류 공통의 문제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현재의 일본문학이다. 끄찍한 못난이들이 등장하는 일본 청춘소설을 읽으며 이렇게 속이 시원한 이유는 이 지점에 있다. 